

# 지식·감성 결합된 4차 산업혁명 프레임

###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

박세길 지음



“문제의 근원은 프레임 설정에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의식의 밑바탕에서 작동하고 있는 프레임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남아있던 것이다. 남은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핑퐁 게임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성공을 보장받을 여지는 거의 없다. 사고 틀을 바꾸지 않은 채 정적 갖고 뉘는 씨름해봐야 답을 찾지 어렵다는 것이다.”(본문 중에서)



지난해 촛불집회는 정권교체를 넘어 새 정부에게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했다. 내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촛불집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최근 잇따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사실상 12일 개최 예정인 북미회담은 그동안 적대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북미가 핵심 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데 이견이 없다.

지난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2017년 초까지 30년의 시간이 흘렀다.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6월 항쟁의 정신은 이어져 2017년 촛불시민의 결집으로 타올랐다. 촛불집회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게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부여했다.

다가올 30년의 시대적 과제로 '프레임'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정제를 밝힌

이가 있다.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3권)의 저자이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상임이사로 있는 박세길 씨가 '두 번째 프레임 전쟁이 온다'를 펴냈다.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프레임'이란 '진보 대 보수', '노동 대 자본', '북한 대 남한' 등 적대적 이해관계에 의존해왔던 첫 번째 프레임의 종식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뜻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프레임의 정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완전한 평화 체제 구축'과 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기초

한 '상생의 경제 생태계 형성'이다.

특이한 점은 저자는 보수의 기원을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아닌 '김영삼'으로 설정한다. 3당 합당과 함께 집권한 김영삼은 하나회 척결 등 군정 종식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화-민주화동맹'을 보수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고속성장의 산업화와 안보 프레임에 의존하는 습성이 보수의 발목을 잡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그에 비해 진보는 어땠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보와는 거리가 먼 신자유주의를 따랐고, 경제성적에서 실패를 맞보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안보 이슈에 있어서도 보수에게 적잖이 휘둘렸다.

그럼에도 김대중이 제시한 '민주 대 독재', '평화 대 냉전' 등의 '양자 프레임'은 '새 것과 낡은 것 사이의 투쟁'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라는 진보의 프레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프레임'은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전통적인 산업혁명은 무산 계급(프롤레타리아)과 소수의 자본가계급을 낳으면서 '노동 대 자본'이라는 슈퍼 프레임을 형성했다. 두 세력의 적대적 이익 추구가말로 진보와 보수의 경제 모델이 성립할 수 있는 기초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3·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경제체제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제 가치는 피터 드러커가 강조한 '지식'을 포함해 '감성'과 '상상력'이 결합된 결과로서 창출된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벤처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현상이 방증한다.

저자는 "프레임 전쟁을 통해 시민 리더십은 일상적으로 구현된다. 그 반대편에 정치적 리더십이 작동한다"며 "선진 시민은 두 종류 리더십을 매개하고 통일시킨다. 선진 시민이 얼마나 풍부하게 형성되고 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역사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추수밭·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자존감이 바닥일 때 보는 책=누구나 우울할 때가 있다. '자존감이 바닥'일 정도로 스스로가 답고, 세상에 대해 위축감이 생긴다. 일상에서 불현듯 찾아오는 이러한 우울감은 대개 심리적인 차원,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우울과 자책,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자존감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고 여성들이 실제 삶 속에서 자주 직면하는 여러 고민 사례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노지방·1만3000원>

▲관점을 세우는 화폐금융론=금융의 기초와 역사부터 가상화폐 등 최근 이슈까지, 보통 사람들이 금융에 관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최대한 친절하고 쉽게 풀어 쓴 길잡이다. 34년간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분석국장 등으로 일했고 여러 칼럼과 저술-강연을 통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경제 지식을 전파해온 저자 정대영(송원경제연구소장)은 금융 지식으로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돈을 쉽게 잃지 않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창비·1만8000원>

▲21세기 시민혁명=이 책은 비폭력 시민 행동의 기술에 관한 책이다. 시민의 비폭력 투쟁은 지난 세기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차례 역사적인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이 책은 그러한 비폭력 투쟁의 설계자들이 발전시켜온 지난 수십 년 간의 실험 전통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러한 전통



에서 얻은 교훈이 그 후 어떻게 세련되게 다듬어지고 마침내 사회정의 실현의 역사적 획을 그은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갈마비람·2만6000원>

▲두려움의 기술=전 미국 국가대표 익스트림 스키 선수로 시대를 풍미한 '익스트림 스키의 여제(女帝)' 크리스틴 윌머가 '두려움 다루는 기술'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두려움은 결코 피하게 안 누르거나 극복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며, 되레 그런 시도가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단언한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나쁜 감정'으로 여기는 감정들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 그것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예문아이비·1만7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잠이 안 와=주인공인 아기 곰을 통해 잠자기 습관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아기 곰은 땅속에서 잠을 자는 두더지,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 코알라, 추운 남극에서 사는 펭귄 등을 찾아가 같이 잠을 잔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동물들의 잠자는 모습을 보여 주며 동물들의 생태 환경과 자는 모습 등을 배울 수 있다. 아이의 바른 잠자기 습관을 기르고, 자연 관찰도 배울 수 있는 그림책이다. <이룸아이·9000원>

▲콩이다, 콩이야=속담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짧은 글이다. 아이들에게 속담의 속뜻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야기 속담 그림책' 시리즈로 유쾌하고 따뜻한 속담 속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속담을 넘어선 기발한 상상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속담의 뜻을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 또한 배우게 된다. <키린도토리·1만3000원>

▲나오니까 좋다=책에는 어설피지만 듬직한 고릴라와 뾰족뾰족 신경질적으로

보이지만 친구를 배려하는 고슴도치의 캠핑이야기가 담겼다. 둘은 캠핑 내내 티격태격한다. 돌멩이거리는 고릴라는길도 잘 못 찾고, 텐트도 잘 못 친다. 캠핑을안가겠다고 고슴도치는 그런 고릴라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릴라가 원하는 것을 해 준다. 고릴라와 고슴도치를 통해 짧은 순간에 찾아오는 기쁨, 일상의 작은 행복을 담았다. <사파리·9500원>



# '주류 문학 대가'가 들려주는 맛깔난 이야기

### 오늘 뭐 먹지?

권여선 지음



"내 입맛을 키운 건 팔팔이 소주였다"고 말하는 소설가 권여선은 "술꾼들에게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많아야 맛있는 안주는 없다"고 단언한다.

어릴 적 입이 짠았던 그녀는 술을 마시며 입맛을 기워왔다. "홍물스럼기 그지 없는 돼지비계나 막창이 극강의 안주로 거듭나는 데 소주 한잔이면 충분했다" 그녀는 술이 아니었다면 평생 못 먹었을 삼킨 흥어에 증독돼 흥어 잡하는 집을 찾았다니느라 '흥어복'을 따로 마련하기까지 했

못했다.

지난 2016년 술 마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를 내고 인터뷰 등에서 틈만 나면 '술 이야기'를 해 '주류(酒類) 문학의 대가'라는 별칭까지 얻은 권여선 작가가 '대놓고 술 이야기

를 할 수 있는' 음식 산문집 '오늘 뭐 먹지?'를 펴냈다. 모든 음식이 안주인 그녀에게 이 책의 제목은 '오늘 안주 뭐 먹지?'이기도 하다.

책은 '봄·정춘의 맛', '여름·이열치열의 맛', '가을·다디단 맛', '겨울·처음의 맛', 그리고 '환절기'까지 5부, 20개 장으로 나눠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하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에 등장하는 첫 음식은 순대다. 대학 시절 처음 순대집에 가서 '붉은 고춧가루가 섞인 소금'만 먹던 그녀의 입맛은 소주와 함께 무럭무럭 자라 지금은 혼자서도 동네 식당에 들어가 소주 한병 시키고 돼지 귀, 오소리감투, 애기보리가 든 순댓국을

맛나게 먹는다.

이어 '김과 밥만 있으면 나머지 재료는 무엇이든 상관 없기에 너그러운 음식이고, 재료의 색깔만 잘 맞추면 이보다 아예쁜 먹거리는 없기에 아름다운 음식'인 김밥을 비롯해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냄비국수, 푹 쏘는 맛이 일품인 물회, 여름을 거뜨히 나게 하는 각종 말반찬들, 고등어와 간짜장에 대한 이야기가 속속 등장한다. 물론 책에는 음식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다. 음식을 통해 맺어진 인연, 음식에 얽힌 사연들이 어우러지며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유쾌하고 재미난 글과 문체는 어쩌면 책에 등장하는 음식보다 더 맛깔스럽다. 동리문학상,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등을 수상한 권 작가의 첫번째 산문집이다. <한겨레 출판·1만38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p>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2>개업·성업 안내</h2> <p>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p>	<h3>초대 화랑</h3>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p>	<h3>메타루이펜션</h3> <p>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영)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p> <p>☎061)383-2698, 010-3603-2698</p>	<h3>셋강다슬기</h3> <p>서구 풍곡로 12번길 11(풍암고 정문앞) 다슬기수제비·탕, 다슬기토장탕, 다슬기담·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손님환영</p> <p>대표 김병환 ☎062)233-3636</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062)224-7687, 010-2611-7687</p>	
<h3>금강버티컬</h3> <p>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컴비올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062)514-6118, 010-5627-6119</p>	<h3>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h3> <p>동구 밤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p> <p>☎062)233-9992</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h3>하얀나라 운동화세탁</h3> <p>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p> <p>☎062)269-4450, 010-4607-5773</p>	<h3>고흥나루터</h3> <p>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리구이, 장어탕</p> <p>대표 모복자 ☎062)222-3092</p>	<h3>내담대구탕·찜</h3> <p>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p> <p>대표 한혜숙 ☎062)471-5050</p>
<h3>교원빨간펜 남광주센터</h3> <p>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들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p> <p>☎010-3613-3145</p>	<h3>청학철학원</h3> <p>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h3>으뜸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h3>서울표구점</h3> <p>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p> <p>☎010-3633-2790</p>	<h3>무크</h3>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p> <p>☎062)370-9258</p>
<h3>양지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p> <p>대표 전병양 ☎062)263-2223</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현승 ☎062)222-6866</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h3>토산철학원</h3> <p>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h3>국수나무용봉점</h3> <p>북구 용봉동 1091-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h3>한솔도시락 서영대점</h3> <p>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p> <p>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p>